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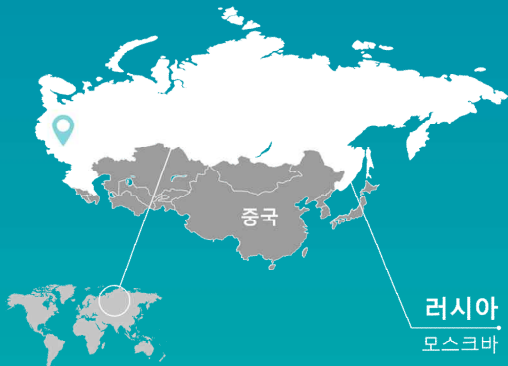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러시아

### Russian Federation

2021년 11월 23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7,098천 km <sup>2</sup> (2021)	<b>인구</b> 146백만 명 (2021)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중국 및 신흥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b>GDP</b> 16,476억 달러 (2021)	<b>1인당GDP</b> 11,273달러 (2021)	<b>통화단위</b> Russian Ruble (RUB)	<b>환율(U\$기준)</b> 73.59 (2021)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생산국,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이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 7월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음. 2020년 반정부 지도자인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2021년 초 나발니의 투옥으로 모스크바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반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3.0%) 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유가 상승, 국내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플러스(4.7%)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지속으로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악화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교역, 에너지 투자, 금융,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7,320,899	7,774,133	6,899,968	합성수지, 차량, 송신기기, 의류,
수 입	17,504,050	14,566,507	10,630,194	석유, 알미늄괴, 철강, 농축우라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35건, 2,955,51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제성장률	1.8	2.8	2.0	-3.0	4.7
소비자물가상승률	3.7	2.9	4.5	3.4	5.9
재정수지/GDP	-1.5	2.9	1.9	-4.0	-0.6

자료: IMF, EIU

### 2021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 회복 전망

- IMF는 2021년 10월에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러시아 경제가 4.7%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MF의 이같은 전망은 2021년 4월 전망 대비 0.9%, 7월 전망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이는 민간 소비 증가, 투자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서방의 대러 제재, 낮은 백신 접종률,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등이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IMF는 2022년의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9%로 올해와 비교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2021년 4월의 3.8% 전망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낮은 백신 접종률, 정책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IMF	세계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2021	4.7% ('21.10)	4.3% ('21.10)	4.2% ('21.9)
2022	2.9% ('21.10)	2.8% ('21.10)	3.0% ('21.9)

자료: 각 기관 자료 참고

-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IMF와 마찬가지로 2021년 9월에 올해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8%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은 3.2%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음.
- IMF와 러시아 정부의 2021~22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은 신흥국 평균 및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이는 산업다변화 미흡, 제도 개혁 부진,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구분	러시아	신흥국 평균	세계 평균
2021	4.7%	6.4%	5.9%
2022	2.9%	5.1%	4.9%

자료: IMF

## 국내경제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21년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2020년에 이어 GDP 대비 -0.6%의 적자를 기록하겠으나, 2022~23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의 수출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도의 -4.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의 예산 계획안(2022~24년)

단위: 조 루블(GDP 대비 비중)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입	25.02(18.8%)	25.54(18%)	25.83(17%)
재정지출	23.69(17.8%)	25.24(17.8%)	26.35(17.4%)
재정수지	1.33(1.0%)	0.3(0.2%)	-0.52(-0.3%)

자료: <https://ri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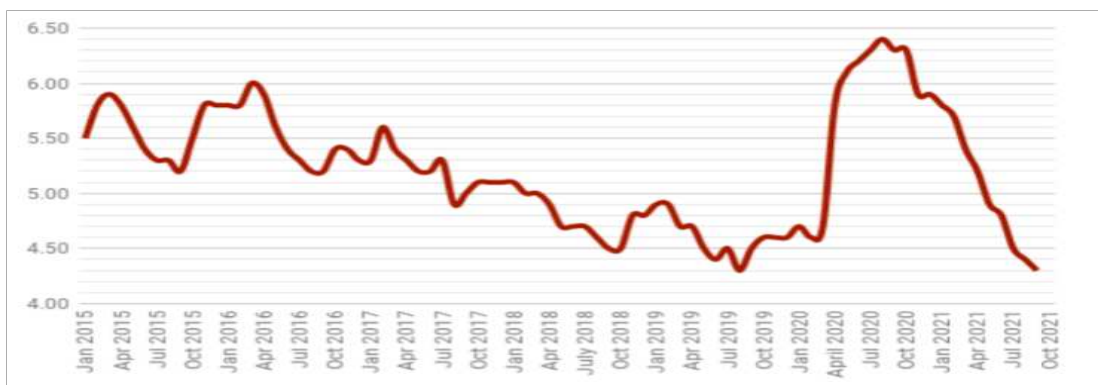
- 2021년 10월 의회에 제출된 2022~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수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음.
- 다만, 러시아 정부는 202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을 전망하여 이로 인한 원유수출액 및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기 회복으로 실업률 하락

-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020년 8월 이후 실업률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의 실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8월 6.4%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9월에는 4.3%를 기록함.

#### 러시아 실업률 추이(2015.1월~2021.10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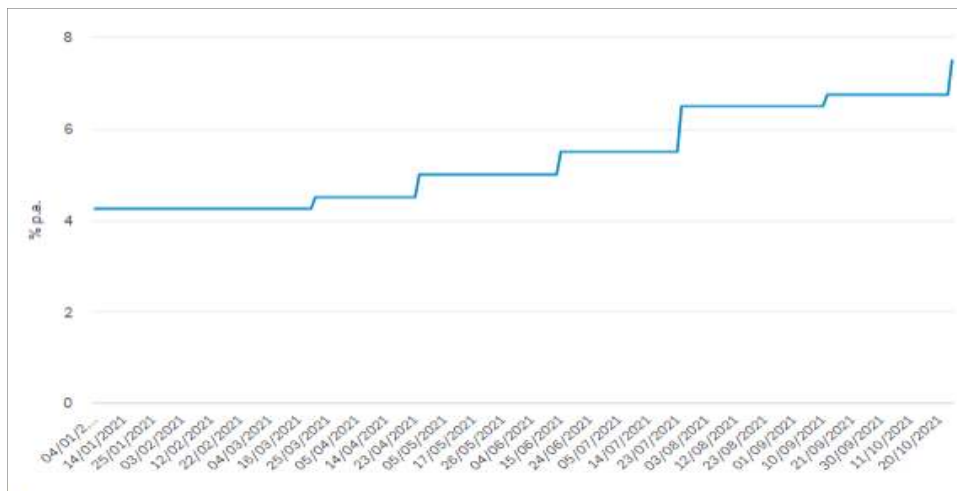
자료: <https://www.intellinews.com/>

## 국내경제

###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상승 추세

-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초에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0%로 전망하였으나, 경기 회복 추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에 7.4%, 10월에 7.8%로 상승함에 따라 연초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2021년 초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월의 4.25% 수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3.25%p 인상되어 2021년 10월 말에는 7.5%를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 기준금리 변동(2021.1월~2021.10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2022년에는 4.0%~4.5%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4.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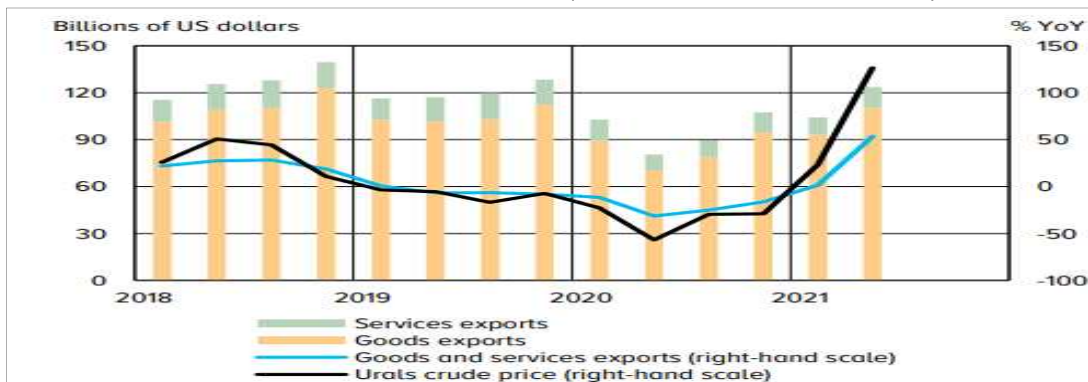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 상 수 지	32,179	115,680	65,399	36,004	86,950
경상수지/GDP	2.1	7.0	3.9	2.4	5.3
상 품 수 지	114,558	195,058	165,845	93,735	160,412
상 품 수 출	352,941	443,915	419,721	333,375	443,889
상 품 수 입	238,384	248,857	253,877	239,640	283,477
외 환 보 유 액	346,507	371,733	433,297	444,495	458,992
총 외 채	518,445	455,073	492,270	439,122	441,446
총외채잔액/GDP	32.9	27.5	29.1	29.7	26.8
D.S.R.	13.4	17.5	17.9	22.2	16.4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2021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2021년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전년대비 71.1% 증가 전망)를 견인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5.3%의 흑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이 동반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입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여 수출액에 비해 증가 폭이 낮을 것으로 추정됨.

러시아 수출 및 유가 변동(2018년 1분기 ~ 2021년 2분기)



자료: 러시아중앙은행,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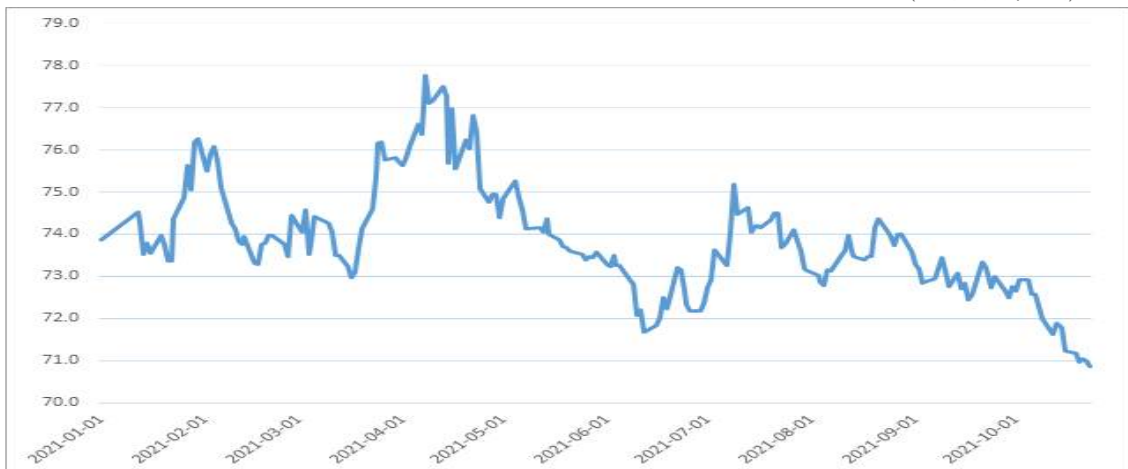
## 대외거래

### 루블화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하락세 지속

- 2021년 루블화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1년 1월 초 1달러 당 73.88루블이었던 루블화 환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긴장 고조 및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았던 4월 초에 1달러 당 77.77루블까지 상승하였음. 4월 이후 국경에서의 대치 상황 해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의 영향으로 환율은 점차 하락하여 2021년 10월 말에는 1달러 당 70~72루블 선에서 보합세를 형성하였음.

러시아 루블화 환율(2021.1월~2021.10월)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중앙은행

##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 유지

-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액 및 GDP 규모 증가로 주요 외채상환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0년 29.7%에서 2021년에는 26.8%,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0년 103.3%에서 2021년에는 81.2%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말 기준 공적채무 비중은 GDP 대비 20%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며, 2022~23년에도 2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대 및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 보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영에너지 기업의 수출소득이 증가하며 외환보유액도 증대하였음.
- 2021년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12.1개월분에 이르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10월 초 기준 GDP의 12%에 달하는 1,91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국부펀드 자금은 금이나 달러화 및 유로화 자산 등에 투자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금이나 유로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 예산 규정은 GDP의 7%를 초과하는 국부펀드 자금을 인프라 건설이나 정부의 전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러시아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러시아 국부펀드 규모(2017.1월~2021.1월)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러시아 재무부



## 구조적취약성

###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지속

- 러시아의 석유, 가스 부문은 2020년 GDP의 15.2%, 재정수입의 28.0%, 수출의 44.3%를 점유함.
- 2017~20년 기간 동안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연평균 GDP의 18.1%, 재정수입의 38.3%, 수출의 58.3%를 점유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부문이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음.

#### 석유 및 가스의 러시아 경제에서의 비중

(단위: %(좌측: GDP, 재정수입, 수출), 달러(우측: 국제유가))



자료: <https://www.rbc.ru>

### 중소기업 발전이 취약하여 경제 전반에서 낮은 비중 점유

- 러시아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GDP의 20%(2019년 기준) 비중으로 선진국의 GDP 대비 40~70% 비중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점유하는 비중도 27.5%(2018년 기준)로 선진국의 비중(50~8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임.
- 이러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국영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약한 금융지원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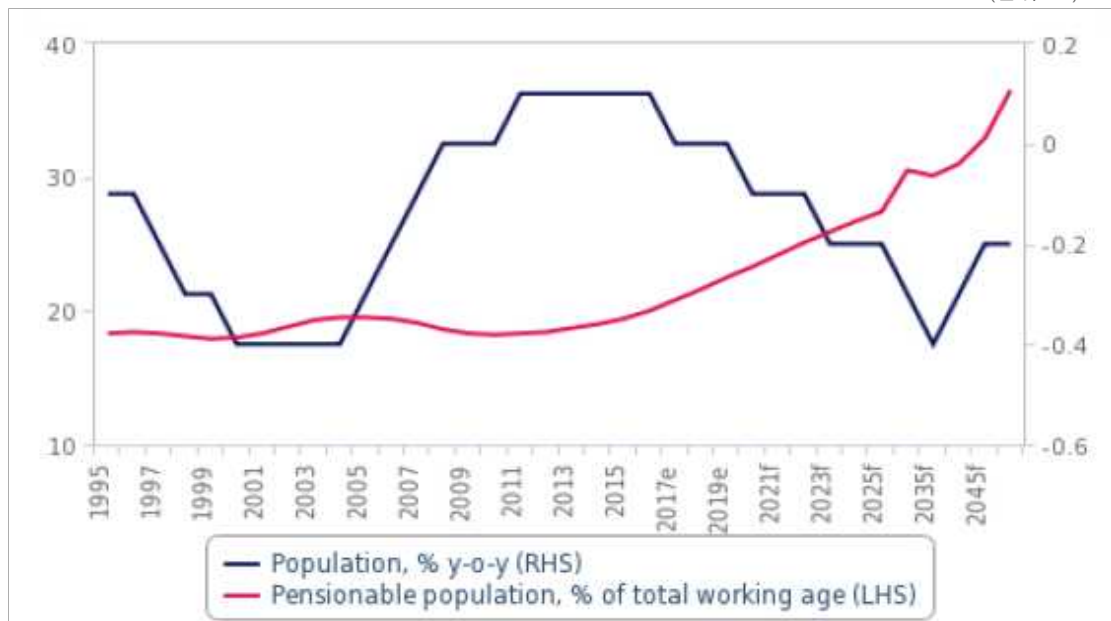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마이너스 인구증가율 및 고령화 지속

- 러시아 인구증가율은 2021년 -0.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5년 경에는 -0.4%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인구 감소가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구구조에서도 고령화가 지속되어 2035년 이후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인구증가율 및 고령화 추세

(단위: %)



자료: Fitch

## 성장잠재력

### 디지털 부문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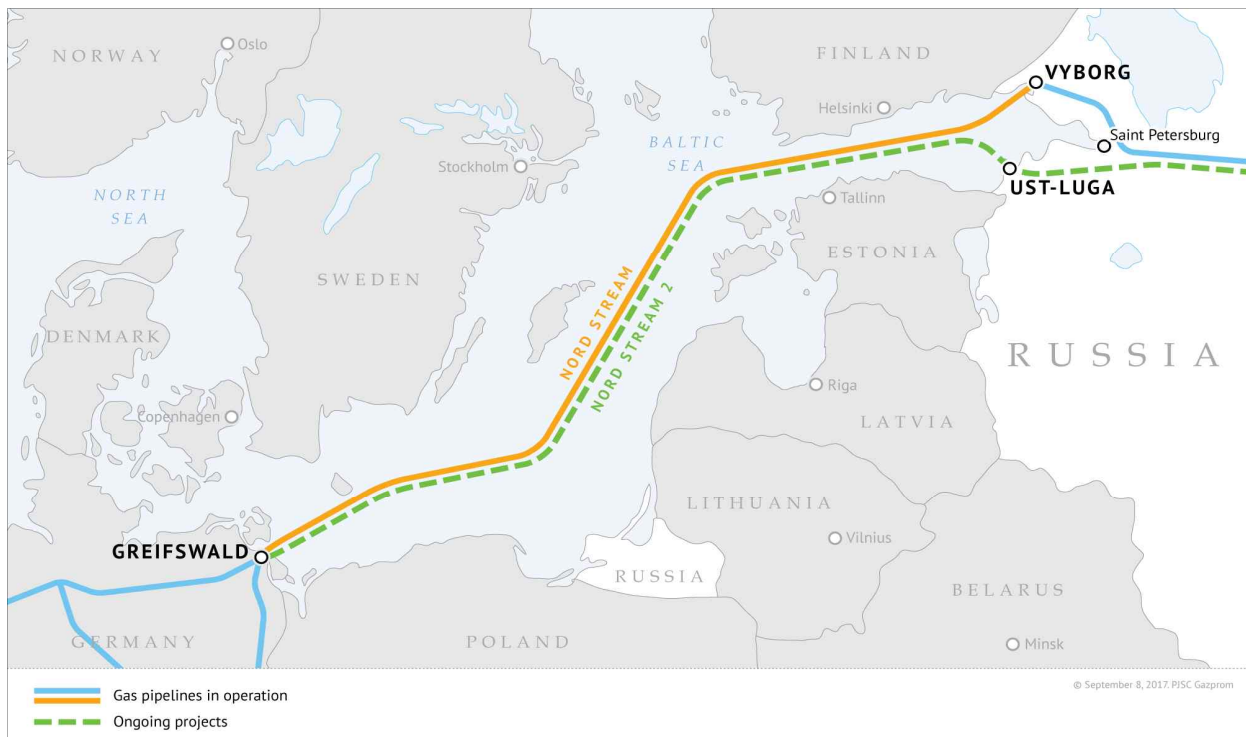
- 러시아 정부는 스콜코보 재단, 지역 혁신특구 등과 펀드를 통해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러시아벤처기업(RVC, Russia Venture Company)', '혁신촉진펀드'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고 금융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국립 모스크바대학교 내에 국영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혁신밸리를 설립하고 청년 창업 등과 연계된 디지털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국영기업인 로스테크,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 국영 통신기업인 로스텔레콤과 함께 민간기업인 안덱스(Yandex), Mail.ru 등이 디지털 부문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기존에 기술 혁신 분야의 최대 기업인 로스테크에서 디지털 및 혁신과 관련된 다수의 자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투자를 하였음. 최근에는 스베르뱅크, 로스텔레콤 등 금융, 통신 기업들이 AI,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등의 혁신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안덱스, Mail.ru 등 민간 대기업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자율주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지속적인 에너지 개발 및 생산 확대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의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북극 지역에서 LNG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2020년 기준 원유 매장량은 1,078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일 생산량은 10,667만 배럴(연 5.244억 톤, 2019년 5.724억 톤)로 세계 생산량의 12.1%에 이르고 있음. 2020년의 원유 수출은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1.382억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개별 국가로는 중국에 가장 많은 8,340만 톤을 수출(전체 수출의 32%)하였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20년 말 기준 37.4조 m<sup>3</sup>로 세계 매장량의 19.9%를 점유하였으며, 생산량은 연 6,385억 m<sup>3</sup>로 세계 생산량의 16.6%에 이르고 있음.
- 러시아는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20년 기준 가스관을 통해 1,977억 m<sup>3</sup>, LNG 형태로 404억 m<sup>3</sup>의 가스를 수출하여, 세계 가스 수출의 25.3%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가스관을 통해서만 유럽에 1,677억 m<sup>3</sup>, CIS 지역에 261억 m<sup>3</sup>, 중국에 39억 m<sup>3</sup>을 수출하였는데, 올해 개통된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LNG는 유럽에 172억 m<sup>3</sup>, 중국에 69억 m<sup>3</sup>, 일본에 84억 m<sup>3</sup>, 한국에 28억 m<sup>3</sup>를 수출하였음. 향후 야말 및 북극 LNG-2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야말 LNG 사업에서는 2017년부터 LNG를 생산하고 있으며, 북극 LNG-2 사업에서는 2022~23년부터 LNG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성장잠재력

노드스트림-2 가스관



자료: <https://www.gazprom.com>

\*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총연장 1,200km로, 연 550억 m<sup>3</sup>의 가스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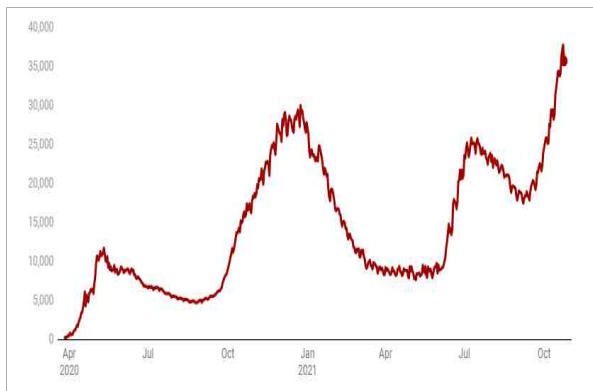
## 정책성과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증가세 지속

- 11월 20일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가 1,222명에 이르러,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을 겪고 있음.
- 11월 22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26만 5,336명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 순)로 많은 규모를 기록하였음. 또한 11월 6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4만 210명)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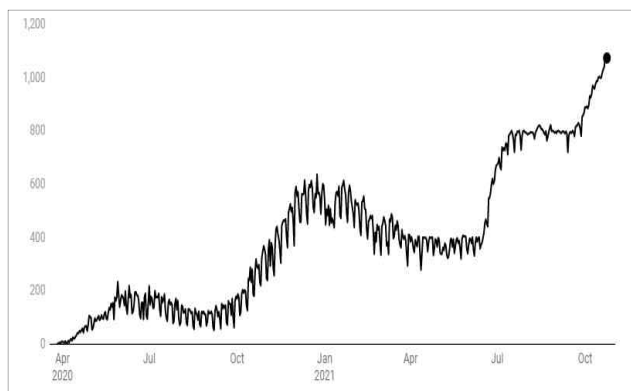
러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2020.4월~2021.10월)

(단위: 명)



러시아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  
(2020.4월~2021.10월)

(단위: 명)



자료: <https://www.themoscowtimes.com/>

자료: <https://www.themoscowtimes.com/>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10월 20일 대통령령을 발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를 유급휴무 기간으로 지정함.
- 모스크바 시는 자체적으로 10월 28일부터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사업장과 카페, 식당, 영화관, 쇼핑몰 등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음.
- 또한 초·중·고교는 방학을 실시하고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은 2020년 5월 이후의 경제활동 제한 완화 정책과 국민들의 백신 불신에 따른 낮은 백신 접종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3월 말에 시행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20년 5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한 이후, 2021년 6월의 3차 대유행 시기 이전까지 완화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음.
- 2021년 11월 초 기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3 수준(34.2%)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39.9%)에 비해 낮은 수준임.<sup>1)</sup>

1) <https://ourworldindata.org>

## 정책성과

###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기업 경영여건 순위 다소 개선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러시아는 2019년 141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음.
  - 이는 10년 전인 2009년의 63위(139개국 대상)에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혁신 및 ICT 분야의 순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매년 64개 OECD 국가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국제경쟁력지수에서는 2021년 45위를 기록함.
  - 이는 2020년의 50위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교육 및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15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러시아는 숙련 노동인력의 수와 고등교육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효율적인 법적 환경, 기업 지배구조, 정부 경쟁력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세계은행의 기업 경영여건 순위는 2017년의 35위(190개국 대상)에서 2019년에는 28위(190개국 대상)로 다소 상승하였음.

###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순위

-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지수(Economic Freedom Score)에서 러시아는 2021년 178개 평가대상국 중 92위에 그쳤으며,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평가대상 45개국 중 42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sup>2)</sup>
- 러시아는 사법 효율성, 재산권,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재정건전성, 세금 부담, 기업활동 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에서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2) <https://www.heritage.org>

## 정치안정

###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의 체포로 전국적 시위 발생

-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2021년 1월과 4월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함.
- 2021년 1월 나발니의 체포 이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하여 수천 명이 체포된 바 있으며, 4월에도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음.
- 나발니는 2020년 8월 러시아 국내에서 항공기로 이동하던 중에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으며,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음. 2021년 1월 독일에서 귀국 시 러시아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2014년 사기 혐의로 3년 6개월 형)이 실행으로 전환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음.
- 서방 국가들에서도 나발니의 독살 시도와 투옥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10월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방 45개 국가들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규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나발니 독살 시도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나발니를 2021년의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푸틴 정부의 안정적 통치 체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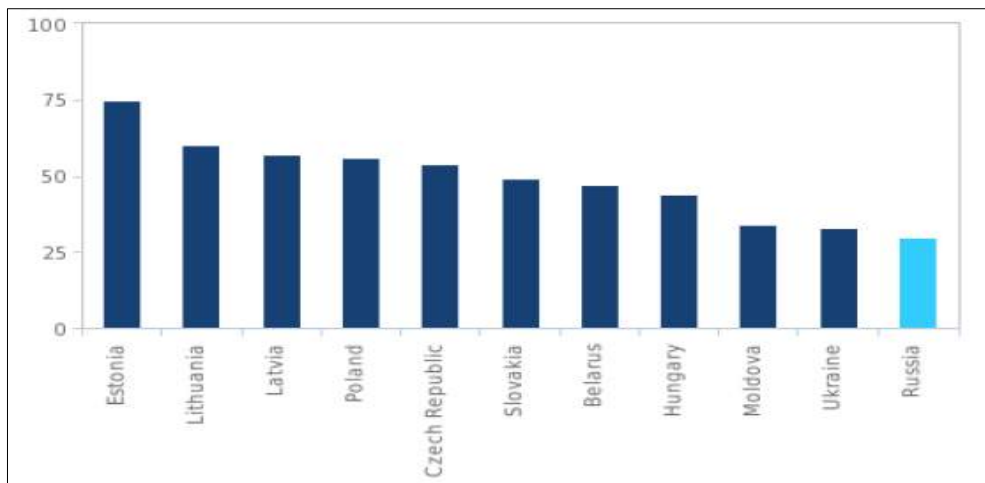
- 2021년 9월의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하며 현정부의 통치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국가두마(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전체 450석 가운데 324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었음.
- 여당의 하원 의석 수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는 19석이 줄었으나, 개헌선인 300석(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을 상회하여 푸틴 대통령의 지속적인 집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제1야당인 공산당은 총선에서 18.9%를 득표하여 57석을 확보하여 2016년의 42석에 비해 15석이 증가하였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의러시아당'이 27석, 극우 세력인 '자유민주당'이 21석, 중도우파인 '새로운 사람들'이 13석을 확보하였음.

## 사회안정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 세계 하위권

- 러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지수에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29위에 올랐음.
- 러시아의 순위는 2010년의 154위(178개국 대상)에서 2015년의 119위(168개국 대상)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순위가 하락하여 정부의 부패 문제 해결에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러시아의 부패지수는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및 중·동유럽의 부패지수 비교



자료: Fitch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ESG 신용영향점수는 '다소 부정적'으로 중위권으로 평가

- Moody's는 러시아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수출 및 재정수입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탄소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사회)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의 하락은 노동력 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지배구조) 법의 지배, 소유권 확립, 부패 통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서방의 대러 제재 및 서방과의 관계 악화 상태 지속

-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독립주의자들에 대한 지원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제재를 시행 중임.
  - 특히 2020년 8월에 발생한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과 2021년 1월의 나발니 체포 및 구금으로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를 시행하여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재가 지속되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미국 정부는 2021년 4월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 해킹을 이유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으며,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한 바 있음.
  - 이와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발행하는 루블화 및 비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의 매입을 제한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러시아 민간기업 6곳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2021년 10월 나토는 비공개 정보수집 활동을 이유로 벨기에의 나토 주재 러시아 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추방하였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모스크바 주재 나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였음.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및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긴장 상황 지속

- 2021년 4월과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 병력이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됨.
  - 2021년 4월과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병력과 전투기를 집결하며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선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자들 간에 소규모의 군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



자료: <https://www.bbc.com>

## 국제관계

### 202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와의 회담 개최

- 러시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수립 초기에는 탈레반 정부와의 협력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2021년 10월에는 탈레반 정부 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음.
- 2021년 8월 탈레반 정부 수립 초기에 러시아 정부는 탈레반 정부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이에 대응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단과 중국,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와 참여국들은 탈레반 정부가 주변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정치세력을 포용하며, 인권을 보장할 경우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과는 기술 및 우주, 군사, 전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 러시아와 중국은 2020~21년을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과학,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은 공동으로 2030년까지 '달 연구기지' 설치, 2024년까지 소행성 공동 탐사 추진 등을 비롯하여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은 2021년 10월 극동러시아 해상에서 10일 동안 대잠수함 전투기, 대형 구축함을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및 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1년 8월에도 양국은 중국 내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부연합-2021'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조기경보기, 정찰 및 전투 무인기 등의 최신 무기와 장비가 사용되고 1만 여명이 참여하였음.
- 2021년 10월에는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에 따라 극동러시아 아무르 주에서 중국 하이룽장성으로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전력공급을 확대하였음.

## 외채상환태도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낮은 수준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러시아에 대한 여신 잔액은 228억 2,770만 달러(단기 29억 5,170만 달러, 중장기 198억 7,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연체액은 중장기 1억 930만 달러, 단기 1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5%의 낮은 수준으로, 1년 전인 2019년 9월 말 기준의 1억 680만 달러(전체 잔액의 0.4%)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1.1)	4등급(2020.1)
Moody's	Baa3(2021.6)	Ba1 (2019.2)
Fitch	BBB(2021.7)	BBB-(2021.2)

### 국제신용평가 3사는 러시아에 대한 기존 등급과 등급전망 유지

- 2021년 Moody's(6월), Fitch(7월)는 러시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고 있음.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러시아 거시경제의 안정성 지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음.
- 2021년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소득 증대와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안정성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혁 미흡, 서방의 제재 지속 등을 러시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IMF는 2021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 국내소비 증가, 투자 증가 등에 따라 올해의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2021년 4월)의 3.8%에서 4.7%로 상향조정하였음.
- GDP 규모 및 수출액, 외환보유액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총수출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등 주요 외채상환지표들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의 체포 및 투옥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나, 2021년 9월의 국가두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향후 푸틴의 지속적인 집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서의 무력 대치 상황이 지속되며 2014년 이후 악화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는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